

Ⅲ. 시사점

□ 의무보험의 손해율 관리 강화

- 의무보험 영역확대에 따라 약 1,700억원의 수입보험료가 증대되는 반면, 고위험물건에 대한 선별적 인수가 어려워지므로 합리적 요율 차등화 방안 모색 등 손해율 관리 강화가 요구됨
- 의무보험의 자기부담금제 적용 범위를 음주·무면허사고 뿐 아니라 유상운송사고,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사고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사고 중 신호위반·중앙선침범·과속에 의한 사고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 추진함으로써 사고예방의식을 제고
- 또한 철저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금누수 방지 노력이 더욱 긴요한 상황

□ 판매채널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

-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측면 및 보험 소비자 효익 증대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시행 및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허용 등 판매채널이 변화하고 있음
- 자동차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시행이 손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손보 자회사 설립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손보사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
- 손·생보간 교차모집 허용 등 경쟁 활성화에 따른 회사별 생존방안과 기존 모집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

□ 보험소비자 보호의 형평성 제고

- 보험소비자 보호는 공공성이 강한 자동차보험에 있어 강조되어 마땅하나, 소수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소비자간 형평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됨
- 가불금제도 강화는 피해자 보호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불금지급 제외 기준 마련 등 가불금 지급 요건의 강화 및 객관화가 필요
- 아울러 의무가입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규정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및 보험회사간 과당 가격경쟁유발 등의 이유로 이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예금자보호법상 한도를 인상하는 등 개선 필요

□ 합리적인 정비수가 표준화 방안 마련

- 대물배상보험의 가입의무화 및 차대차사고 증가에 따라 정비수가 관련 분쟁도 증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교부는 정비수가 표준화를 추진
- 표준화 항목 중 표준작업시간은 객관적인 계량화와 정착이 필요하나,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체간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위배 소지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개별 정비업체의 시설 정도 및 소재지 등을 고려한 시장경쟁논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

□ 타 법령의 제·개정 에 대한 분석 강화 및 신속한 대응 필요

-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 당사자 외에 피해자인 제3자가 존재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법의 제·개정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
 - 따라서 타법의 제·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며, 업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
- 일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보험업계의 자료제공의무에 대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보험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
 - 양측의 자료제공범위, 방법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보험조사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
□ 자동차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품 및 가격전략 수립

- 가격자유화, 금융겸업화 및 방카슈랑스 시행 등으로 손보사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
 - 자동차보험산업은 타 금융산업과 달리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공보험적 성격이 특히 강조되므로 손보사의 지급여력 확보 및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므로
 - 가격할인에 의존한 인수경쟁을 지양하고, 회사별 경영현실을 반영한 성과중심의 상품 및 가격전략 수립이 필요함

CEO Report 2004-

자동차보험 관련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

발행일	2004년	4월	일
발행인	임	재	영
편집인	나	해	인
발행처	보험개발원		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		
	대표전화	368-4000	
인쇄소	(주)유성사		
	대표전화	2268-0676	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
자동차보험본부 제도실(☎368-4208)로 하여 주십시오.